

GCF, 벨리즈 능력배양 자금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2016.11.17, 마라케시 - 벨리즈와 녹색기후기금(GCF)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벨리즈를 위한 능력배양 자금지원을 승인하는 협정서한에 각각 서명했다.

오마르 피게로아 벨리즈 농·어·임업,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장관과 우세이누 나쿨리마 GCF 국가프로그래밍 국장이 각각 대표자로 서명했다. 이로써 벨리즈는 향후 GCF 사업 자금을 신청·수령·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배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게로아 장관은 서명식에서 “기후재정에 대한 접근은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대 사안으로 이러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가지정기구(NDA)를 강화하고, 필요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콜린 영 GCF 이사이자 벨리즈 농·어·임업,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수석 임원(Chief Executive)도 서명식에 함께 했다. GCF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로이스 영과 재닌 펠슨 벨리즈 유엔대사 두 명과 마크 바이노 카리브해공동체기후변화센터(CCCCC) 사무총장보 역시 참석하였다. 카리브해공동체기후변화센터는 벨리즈 능력배양 사업 이행 파트너이다.

콜린 영 GCF 이사는 “이번 지원은 벨리즈 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지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벨리즈가 내년 GCF 구조화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개최할 것이다. 일련의 이러한 전개는 아직도 벨리즈보다 역량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모멘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GCF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기회를 찾고 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카리브해 구조화 대화는 2017년 초에 벨리즈에서 개최 예정이다. 카리브해 군소 도서국 대표와 GCF 이행기구 및 능력배양 사업 시행 파트너 등도 참석 예정이다.

카리브해 구조화 대화는 지난 10월 200명 이상의 GCF 파트너를 한 자리에 모았던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구조적 대화 이후 두 번째이다.

2016년 3월 이사회에서 채택된 GCF 전략계획에 따라 GCF는 구조화 대화 준비를 중요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개최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strengthens-partnership-with-belize-on-readiness-funding?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